

사계절 무한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관동 (당일 출퇴근) 10명 이상 100% 할인
- 인천시 9월 이후 출퇴근요율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dy.com 0801-320-7700

최형우 췌기 3점포...삼성 2연승

두산에 6-2 승...2승1패



‘중고 신인’ 삼성 최형우의 홈런포가 두산 불펜을 무너뜨렸다.

〈PO 3차전〉

1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08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최형우의 스리런을 발판으로 6-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삼성은 2연승을 달리며 2승1패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는 모처럼 선발진의 광광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선발로 나온 두산의 이해찬과 삼성 윤성환은 5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키며 임무를 완수했다.

1차전에서는 양팀의 에이스 김진우와 배영수가 각각 2이닝, 3과 3분의 2이닝을 막는데 그치는 등 앞선 경기에서 선발 투수가 기록한 최대 이닝은 두산 랜들의 4이닝이었다.

절묘한 컨트롤을 앞세워 1·2회 3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던 이해찬은 선두타자 강봉규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며 3회를 시작했다.

이해찬은 노련한 김재걸, 박한이를 외야 플라이로 잡아내며 위기를 마무리 짓는 듯했지만 신명철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2사 1·2구가 됐다.

앞선 2회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홍성흔의 파울볼을 잡아냈던 박석민이 타석에 들어섰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늑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은 박석민은 좌익수 킷을 넘긴 큼직한 2루타로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며 2-0을 만들었다.

5회 오재원의 희생플라이로 두산이 1점을 만회했지만 불펜 전략이 실패했다.

김경문 감독은 6회 이해찬을 내리고 김상현을 마운드에 올리며 불펜 가동에 들어갔지만 첫 타자 신명철이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이어진 타석에서 박석민은 초구를 받아 2루타를 만들어내며 ‘부상투혼’을 선보였다. 무사 2·3루, 포스트 시즌에서 0.167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형우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했다.

8회 두산이 마지막 투심을 발휘했지만 박진만의 명품수비가 승부를 결정지었다.

두산은 8회 1사 1·2루에서 유재웅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며 6-2를 만들었다. 오재원의 볼넷으로 2사 만루. 타석에는 2008 시즌 타격왕 김현수가 들어섰다.

그러나 김현수가 결대로 밀어치면서 만들어진 안타성 타구가 높게 뛰어오른 유격수 박진만의 글러브에 그대로 빨려들어가면서 라인 드라이브 아웃이 되고 말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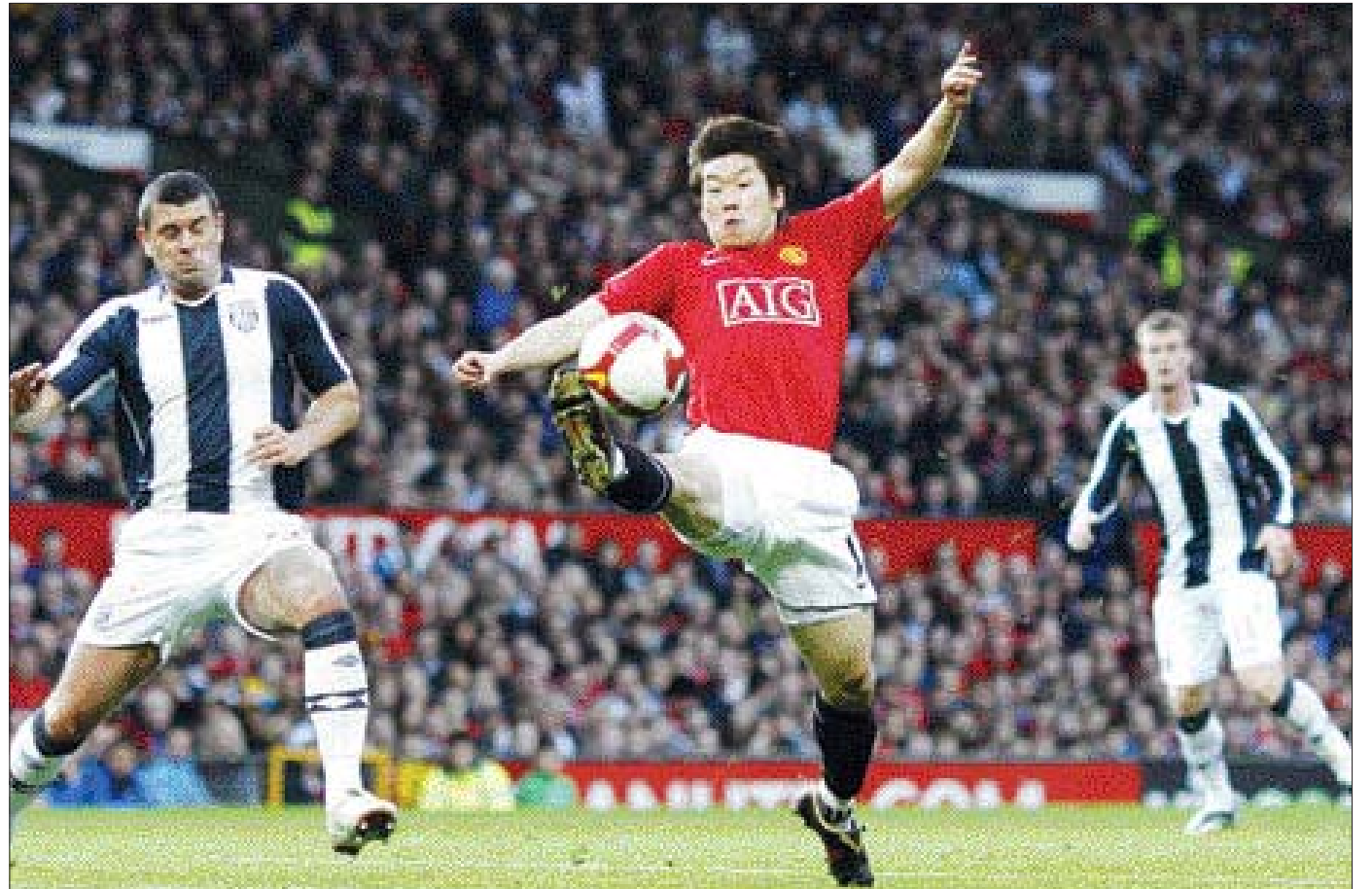


1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삼성 라이온즈-두산 베어즈전에서 6회말 1사 2, 3루의 찬스에서 삼성 최형우가 3점짜리 우월홈런을 치고 3루를 돌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차전에서 2개의 실책으로 팀 패배를 좌초했던 박진만은 명품 수비로 두산의 추격을 물리치고 팀의 2연승을 확정 지었다.

두 팀은 20일 오후 6시 대구구장에서 4차전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해외파 3인방 주말 선발 출격 투혼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가운데)이 1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펼쳐진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온과의 홈경기에서 로빈슨(왼쪽)으로부터 공을 빼앗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이·영·표

박·주·영

열심히 뛰었다

유럽축구 무대에서 뛰는 태극전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31·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박주영(23·AS모나코)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1부리그의 그라운드를 누볐다. 박지성은 1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펼쳐진 2008-2009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온(이하 웨스트브롬)과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후반 25분 루이스 나니와 교체될 때까지 70분간 뛰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짝을 이뤄 투톱인 웨인 루니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를 받치는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 박지성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그라

플타임 출전

공격에서는 그다지 인상적인 장면이 없었지만 박지성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등 평소와 다른 플레이를 선보이며 팬들의 4·0 완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승리로 정규리그 3연승을 달린 맨유는 4승2무1패 승점 14를 기록하며 선두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분데스리가에 안착한 이영표도 전날 밤 열린 베르더 브레멘과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영표의 투혼에도 도르트문트는 3-3 무승부에 그쳤다. 박주영은 풀타임으로 뛰었지만 골대를 맞히는 불운 속에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

골대 맞는 불운

리지 못했다. 박주영은 이날 오전 모나코 루이II세 경기장에서 치러진 2008-2009 프랑스 1부 정규리그 9라운드 OGC 니스와 홈 경기에서 전반 공격수로 선발출전, 풀타임을 뛰면서 후반 20분 골대를 맞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지난달 14일 데뷔전이었던 로리앙과 5라운드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활약을 펼쳤던 박주영은 이후 정규리그 4경기과 컵 대회 1경기를 치르면서 한 달 넘게 골 맛을 보지 못했다. 모나코 역시 박주영이 골 침묵을 지키면서 1-2로 패하며 컵 대회를 합쳐 4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 고기구 역전골... 전북전 '안방 불패' 행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전북 현대와의 '전라도 derby'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2-1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은 19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2008 삼성하우젠 K리그 22라운드에서 선제골을 내주기도 후반에만 두 골을 몰아넣으며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 전북전 '안방 불패' 행진을 이

어갔다. 공세를 이어가던 두 팀의 0의 균형은 후반 29분 교체 투입된 전북 정경호의 선제골에 무너졌다. 정경호는 투입된 지 3분 만에 '프리킥의 달인' 김형범이 오른쪽에서 올려준 프리킥을 헤딩슛으로 연결해 왼쪽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후반 전남의 거센 반격이 이어졌다. '골 넣는 수비수' 광태휘를 투입하면서 공세를 펼치던 전남은 후반 20분 동점골을

뽑아냈다. 전남의 미드필더 주광윤이 왼쪽 문전으로 치고 들어가다 신광훈으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슈바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전남은 3분 뒤 왼쪽 엔드라인까지 침투한 김민호가 필요한 후방 패스를 해주자 고기구가 달려들면서 슈트를 날려 2-1로 승부를 뒤집었다. 한편 광주 상무는 1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조원희와 에두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0-2로 패해 23경기째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보스턴 무서운 뒷심 막판서 승부 가리자

탬파베이와 5·6차전

극적인 역전...3승3패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탬파베이 레이스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를 7차전으로 끌고 갔다.

보스턴은 19일(한국시간)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와 ACLS 6차전에서 홈런 4방을 주고받는 승부 끝에 4-2 역전승을 거뒀다. 보스턴은 공수 교대 뒤 2회초 케빈 윌리엄스의 솔로 홈런으로 응수한 뒤 이어진 3회 코코 크리스프의 볼넷과 데이비드 오티스의 2루타, 윌리엄스의 내야 땅볼로 경기를 뒤집었다. 탬파베이는 5회말 제이슨 바틀렛의 솔로 포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지만 보스턴은 이어진 6회초 2사 뒤 제이슨 베리택의 솔로 홈런에 이어 크리스프의 내야 안타와 상대 실책, 오티스의 중전 적시타로 2점을 뽑아 승리를 굳혔다. 보스턴은 5이닝을 던져 승리를 따낸 선발 조시 베크에 이어 히데키 오카자키와 저스틴 매스터스, 조너선 파벨본이 효과적인 계투 작전을 펼쳐 탬파베이 타선을 4안타 2실점으로 막아냈다. 보스턴은 지난해에도 클리블랜드 인디

언스에 1승3패로 물린 뒤 3연승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다. 탬파베이는 1회말 1사 뒤 BJ 엠티의 선제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잡는 듯했지만, 5차전에서 7점 차를 뒤집고 8-7 승리를 거둔 보스턴의 자력은 이날도 발휘됐다. 보스턴은 5이닝을 던져 승리를 따낸 선발 조시 베크에 이어 히데키 오카자키와 저스틴 매스터스, 조너선 파벨본이 효과적인 계투 작전을 펼쳐 탬파베이 타선을 4안타 2실점으로 막아냈다. 보스턴은 지난해에도 클리블랜드 인디



◀ 박·건·기 · 성·시·백 ▶

〈남, 1,000m〉 〈남, 1,500m〉

‘금빛 질주’

ISU 쇼트트랙월드컵 1차 대회

세계 최강전력의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1차 대회부터 '금메달 물이'에 나섰지만 여자 대표팀은 '금 사냥'에 실패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성시백(연세대)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12초97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찰스 헤일린(캐나다·2분13

초542)과 제프 시몬(미국·2분13초610)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한국의 첫 금메달 소식을 알렸다. 이어진 남자 1,000m 결승에서는 한국이 금·은·동을 싸늘했다. 박윤기(연세대)가 1분30초821로 함께 결승에 진출한 이호석(경희대·1분30초989)과 이정수(단국대·1분32초009)를 간발의 차로 앞서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반면 여자부에서는 중국에 밀리면서 은메



달 2개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시즌 첫 대륙마크를 단 정바라(단국대)는 1,500m 결승에서 주양(중국·2분21초445)에 0.219초 뒤지는 2분21초664로 결승선을 지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양신영(분당고·2분22초647)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여자 1,000m 결승에 출전한 신세봉(광문고·1분29초959)도 중국의 '간판스타' 왕멍(1분29초766)에게 간발의 차로 밀리면서 은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